

광주은행, 추석 특별자금 3000억 펀다

금융권, 역대 최대 34조 지원 ... 작년보다 21% ↑

중·소상공인 위주 편성... 체불임금·유동성 해소

광주은행이 추석 특별자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금융권이 올 추석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원을 풀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자금은 원자재 구입과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로 신규 대출해 주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11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5곳과 시중은행 7곳 등 12개 은행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으로 총 33조9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 특별자금 28조1000억원보다 20.6% 많은 규모다. 이는 올 들어 저금리로 인해 투자자를 찾지 못한 부동산이 풍부해 금융권의 대

출 여력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이 '중소기업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다음달 8일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 3000억원을 마련, 다음달 30일까지 대출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고 30억원으로, 금리는 해당 업체 신용도에 따라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해 주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또, 이미 중기에 대출된 자금 가운데 이 기간 안에 만기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3000억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금은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부터 발 빠르게 지

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기업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추석을 맞아 작년보다 6조 5000억원 늘어난 7조5000억원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기로 했다. 최대 1%포인트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신한은행은 작년보다 2조원 많은 6조 5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쓰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1조원 늘어난 8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항목별로는 신규 자금 3조원, 만기 연장 5조원 등인데 최대 1.3%포인트 금리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작년과 동일한 3조원을 추석 자금으로 마련해 냈다. NH농협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명목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났으며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타지역 은행 가운데서는 부산은행과 경

은행별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지원

총계 : 33.9(28.1)	
우리 8.0(7.0)	국민 7.5(6.5)
신한 6.5(4.5)	농협 3.0(2.0)
기업 3.0(3.0)	하나 2.0(2.0)
외환 2.0(1.5)	광주 0.3(0.3)
경남 0.5(0.3)	부산 0.5(0.5)
전북 0.3(0.2)	대구 0.3(0.3)

*단위:조원 *괄호 안은 2013년 지원 금액 (자료:각 사 총합)

남은행이 5000억원씩, 그리고 전북은행과 대구은행은 3000억원씩의 추석 유동성 지원금을 마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존 고객인 중소기업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보응을 맞추려고 추석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며 "저리로 대출되는 데다 자금 수요가 많아 34조원은 시장에서 대부분 소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병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9.37 (+8.27)
- ▲ 금리 2.51% (+0.01)
- ▲ 코스닥 546.30 (+2.06)
- ▼ 환율 1030.30원 (-6.20)

추석선물 3만~5만원대 상품 잘나간다

수산물·커피·햄 세트 인기

경기 불황으로 앞진 지갑과 38년 만에 가장 빠른 이른바 '여름 추석' 등의 영향으로 중·저가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11일 이마트는 지난 1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한 결과 굴비 등 수산물 선물세트와 한우세트, 커피·햄 가공식품 등 중·저가 선물세트가 잘 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이마트는 3만~5만원대 중저가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위주로 지난해 추석보다 30~40%가량 늘렸다. 황성환우 선물세트와 산양삼 선물세트 등 신선 프리미엄 선물세트 역시 물량과 품목을 각각 10%가량 확대해 준비했다.

장르별로는 전통적인 인기선물인 한우 선물세트가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산 선물세트가 올해 어획량 회복과 비축물량 확대로 가격이 크게 내려 인기를 회복할 것으로 이마트측은 예상했다.

홈플러스도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주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순위를 집계한 결과 동서식품의 맥심커피세트 84호(1만8800원)가 전체 매출비중에서 17.7%를 차지, 1위에 올랐다.

동서식품의 맥심커피세트 3호(1만6900원) 2위를 기록하는 등 커피믹스는 이 기간 추석 선물세트 전체 매출에서 34.9%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1~3만원대 저가형 가공식품·생활용품 세트가 판매 순위 상위권을 석권했다. 이른 추석에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도 크게 늘었다.

이마트의 예약판매 매출은 8월 첫 주에만 전년 추석 대비 60% 이상 증가했으며, 홈플러스 역시 전년 대비 242%나 늘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장기 불황에 선물세트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예약판매 매출이 더욱 높아졌다"며 "교통정체 등을 감안해 명절 인사를 미리 드리는 것도 예약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상반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 22대1...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광주의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

11일 국토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14년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지역에 새로 공급된 일반 공급 아파트는 889가구로, 1순위 청약에 1만925명이 몰려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최근 부동산 열기가 높은 6대 광역시의 청약 경쟁률보다 크게 높은 것. 광주에 이어 부산 11.0대 1, 대구 7.9대 1, 울산 5.7대 1 수준이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부동산 투자 열기와 맞물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 가열 열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분기 실질 주택매매가격도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0.8%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0.2%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주택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 주택 전세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2%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중인 전세가을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전세가을은 올 6월기준 78.4%로, 전 달보다도 0.6% 포인트 올랐다. 75%에 다다른 대구보다도 3.4%포인트나 높다.

한편, 전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422조1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 직전 분기 대비 2.4%(연율화) 증가했고 비은행 예금기관에서 9.2% 급증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3.63%로 2011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전자가 1인 가구의 생활 스타일을 고려한 신제품 '슬림스타일' 냉장고를 11일 출시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1인가구 맞춤형 냉장고 '슬림스타일' 출시

삼성전자가 11월 1일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냉장고 '슬림스타일'을 출시했다.

신제품 냉장고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들 소비자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 출시된 제품으로 폭과 깊이는 기존 일반 냉장고보다 슬림해져 좁은 공간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설계했으며 높이는 키워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 대용량 프리미엄 냉장

고에만 적용했던 메탈 디자인을 채용해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완성했다. 2도어 상냉장 하냉동 구조인 '슬림스타일' 냉장고는 반조리 식품, 과일, 야채 등을 보관하는 냉장실을 위로 올리고 남은 식재료를 깔끔하게 보관 할 수 있는 서랍식 냉동실을 아래로 위치해 1인 가구의 식생활 패턴도 고려했다. 삼성전자 '슬림스타일' 냉장고의 용량은 336ℓ이며 출고가는 89만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요리전문점

작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50년 전통의 맛

원조 나죽곰탕

- 곰탕 8,000
- 특곰탕 10,000
- 수육곰탕 10,000
- 육회비빔밥 7,000
- 육회 30,000
- 수육 20,000
- 수육 30,000

나주에서 직접 전수한 맛의 명품

원조 나죽곰탕

대표 구 회 연

Tel. (061) 287-8884

Mobile. 010-2631-3336

목포시 옥암동 1248-4(옥암푸르지오APT 건너편)